

모타운 레코드사의 성공 요인에 대한 고찰

공진석*,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Discussion of the success of Motown records company

Jin-Seok Kong*, Tae-Seon Cho**

Chungwoon graduate school*,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현재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음악 중에 대다수는 예전에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로부터 탄생되었다. 흑인 노예들의 음악은 미국역사에 끼친 가장 큰 영향들 중에 하나일 것이며, 세계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업적일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중음악의 주류에 있는 음악들은 모두 흑인음악을 모태로 유전자를 받은 그 후손들이다. 결국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에서 나온 음악이 세계인이 즐기는 음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K-Pop의 아이돌 음악 문화 또한 흑인음악에 그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와 관습과 이념이 다른 인종에게도 거부감 없이 우리의 문화가 침투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를 통합한 흑인음악의 중심에 있는 모타운 레코드사의 성공요인은 상업적으로 놀랍도록 뛰어난 음악 작품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뮤지션들의 자의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인기에만 집착하여 10대에 편승한 음악시장과 작가의의식, 예술성 결여를 지적받는 우리 대중음악계의 음반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 베리 고디 주니어, 핑크 브라더스, 홀랜드-도지어-홀랜드, 키스, 모타운 사운드, 스모키 로빈슨, 젊은 미국의 소리

Abstract Summary. Most of American pop music, which are dominating the hegemony of the global pop music market, have been derived from the culture of African Americans, most of whom were slaves of European immigrants. The music of black slaves must be the one of the greatest undisputed achievements that have most influenced the American history. Indeed, All of the mainstream pop music work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in America, are the descendants of the black music with the gene of the black people. We can say, therefore, the music born through the Afro-American culture has become the music that every person around the world enjoys in the present. Accordingly, K-Pop music culture, centered in idol group, is also based on the black music. This fact suggests that the K-Pop culture can be spread into people in different customs or traditions with little resistance. The success factor of Motown, at the very center of the black music, which integrated the whole global music, is not only their incredibly outstanding music works, but also the self-consciousness the musicians have that they are strongly reluctant to settle down to present reality. This shall lead to the necessity of self-reflection for the Korean music market, which are obsessed with present popularity and only taking advantage of teenager market, and for those engaged in music business in Korea, who are lack of the artistic value and the consciousness as artist.

Key Words : Berry Gordy Jr., Funk Brothers, H-D-H, KISS, Motown Sound, Smokey Robinson, The Sound Of Young America

* A summary of this paper is organized in 2017 Chu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Received 1 May 2017, Revised 31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재 K-Pop은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 받고 있다. 예술 분야 특히, 대중음악에 있어서 변방국에 불과하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던 그 내면에는 음악이 전 세계 모든 인종, 계층, 문화, 이데올로기의 벽을 뛰어넘는 공통 언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음악언어 가운데 흑인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세계 음악의 현실 속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흑인음악 범주에 속한 곡들이 대다수 인기곡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계음악을 주도하는 흑인음악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대중음악이 세계인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고 우리정서가 투영됨으로서 오히려 익숙하면서 신선한 스타일의 문화로 느껴지게 되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흑인음악의 이유로 세계적인 흐름 속에 편승한 반쪽 문화라서 곧 열풍이 식을 것 이란 비판의 목소리 또한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 하겠다. 그 첫걸음이 흑인 음악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와 박해와 냉대, 멸시의 대상으로 하위계층의 저급한 문화로 취급받던 흑인음악이 현재 모든 세계인의 공통 언어로 존재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1,2].

절대 주류 문화로 갈 수 없을 것 같던 위치의 흑인문화가 현재 세계 문화의 아이콘으로 위치가 이동된 것이다. 이러한 지금의 음악적 흐름의 상황을 이루어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모타운 레코드가 차지하는 위치와 성취해낸 역사는 흑인음악의 모든 흐름을 이해하고 또한 앞으로 세계 음악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특히 보컬음악을 중심으로 천대받던 흑인들의 음악(정신)을 Under ground에서 Over ground로 위상을 끌어올린 모타운 시스템은 K-Pop을 주도하는 현재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본 논문은 Motown Records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과 이유를 기술 하였다[3].

2. 모타운 레코드의 성공 요인

2.1 창설자 베리 고디 주니어의 뛰어난 혜안과 수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획사 중에 SM의 이수만 대표, YG의 양현석 대표, JYP의 박진영 대표등은 전, 현직 가수출신이며 아티스트였다는 경력뿐 아니라 카리스마로 가수를 통제하고 기획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으로 K-pop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모타운의 사장 베리 고디 주니어와 많이 닮아 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흑인 음악 사업가로 꼽히는 베리 고디 주니어는 1929년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귀국 후 참전비 대가를 자본으로 자신이 좋아하던 재즈 음악 음반 전문 레코드점을 개업했으나 2년 만에 실패한다. 그러나 음악적 열정이 넘치던 그는 포드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곡을 써왔다[4,5]. 그 결과 1957년 제키 윌슨의 “Reet Petite”를 발표하여 성공을 거둔다. 성공에 고무된 그는 가족에게 800달러를 빌려 1959년 1월, R&B레이블 탐라 레코드를 설립하고 9월, 팝 지향의 모타운 레코드를 설립한다. 그리고 1960년 4월, 탐라와 모타운을 모타운 레코드 주식회사로 합치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시작한다. 뛰어난 사업적 수완을 가진 그는 열악한 흑인음악 시장만으로는 흑인음악이 생존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절대적인 구매력을 가진 백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젊은 미국의 소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백인들이 좋아하는 흑인 음악을 생산하는데 매진하게 되고 흑인 R&B에 백인 팝 사운드를 결합하게 된다.

우선 브릴 빌딩 팝 제작방식을 차용하여 뛰어난 음악가 발굴을 시작한다. 인재를 알아보는 혜안으로 역사상 최고의 드림팀으로 평가 받는 미러클즈의 스모키 로빈슨과 작곡자 그룹 H-D-H(홀랜드-도지어-홀랜드)트리오는 세션 그룹 핑크 브라더스를 발굴해 낸다.

또한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경험으로 자동차 조립과정을 음반 제작과정으로 접목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을 창안해 낸다. 작곡자, 가수, 안무와 코디를 조합하여 같은 건물과 공간에서 창작, 녹음, 안무, 예절까지 모두를 조련하여 자동차가 생산라인을 거쳐 훌륭한 완성품으로 탄생되듯이 가수를 탄생시켰다.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산된 베리 고디의 카리스마로 통제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음악은 모타운 사운드라 불리게 되며 단순한 곡 구성, 강한 비트, 화

려한 음악적 표현으로 나타난다[6]. 흑인의 어두움은 감추고 경쾌함을 앞세우며 근원적 아픔을 부드러움으로 대체하여 흑인과 백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성공을 거둔다.

반복되는 흑으로 대중을 세뇌시키고 탬버린을 활용한 찰랑거리는 사운드와 흑인특유의 콜 앤 리스펀스를 활용한 보컬 사운드에 백인의 오케스트라를 접목시킨 고급스러운 사운드는 그대로 하나의 음악적 양식이 되었다.

비록 베리 고디가 “성공을 위해 흑인음악의 혼을 팔아 먹은 자”, “의미 없는 사랑 타령으로 흑인들의 생각을 마비시킨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 출신이 만들어낸 컨베이어 벨트”라는 비난을 받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노예 계약의 원조로 소속 가수들 위에 군림했으나 그는 놀라운 혜안과 수완,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철저한 스타관리로 대중음악계 뿐 아니라 흑인사회를 대표하는 거물이 되었고 흑인음악이 지금까지 주류로 흐르게 되는 수월지가 되었다[7,8].

2.2 스모키 로빈슨

모타운의 제왕이란 불린 스모키 로빈슨은 뮤지션 밥 딜런이 “미국에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시인”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발라드 음악들을 만들어냈다. 아티스트 스티비 윈더와 존 레논 역시 가장 존경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윌리엄 로빈슨 2세라는 본명으로 디트로이트의 노스엔드 근처에서 태어났다. 미국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에 의하면 그의 삼촌 클로드가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 그에게 스모키 조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후에는 그의 피부색이 옅은 이유로 삼촌이 그에게 흑인이란 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 별명을 지어줬다고 한다.

어린 시절 놀린 스트롱 앤 더 디아블로즈의 리더 놀린 스트롱의 높은 고음에 매료되어 큰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고음의 보컬음악을 만들어낸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Urban R&B 가수들인 브라이언 맥나йт, 맥스웰, 에릭 베넷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대다수의 수려한 멜로디와 창법을 구사하는 가수들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가수 나얼, 정엽과 같은 가수들에게서도 그의 음악 스타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955년 로빈슨은 가장 가까운 친구 로니 화이트, 고등학교 동창생 피트 무어, 클래런스 도슨과 제임스 그라이스와 함께 보컬 그룹 파이브 차임스를 결성한다. 1957년

에는 도슨과 그라이스를 대신하여 자신의 사촌 에머슨과 바비 로저스를 영입하여 그룹 이름을 마타도어로 다시 출발한다. 에머슨은 후에 로빈슨과 결혼한 누이 클로테트 로저스로 교체되었다[9]. 기타리스트 마브 타플린이 1958년에 가입하면서 로빈슨은 리드 보컬로 자리하며 본격적인 보컬의 길을 걷게 된다. 더 미러클즈는 디트로이트 출신 소울가수 재키 윌슨의 매니저에게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비록 오디션에서는 탈락하였으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베리 고디 주니어와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

프로듀서였던 베리 고디 주니어는 그들의 매니저 역할을 자청했고 더 미러클즈의 메인 작곡가이기도 했던 스모키 로빈슨은 베리 고디와 함께 한 이 시기에 그들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서로 많은 음악적 교감과 배움을 나누게 된다. 그러던 중 베리 고디가 역사적인 모타운 레코드를 세우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타운 레코드사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미러클즈는 모타운의 첫 보컬그룹이 되었다. 이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로빈슨은 1960년부터 1987년까지 모타운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톱40 히트곡들을 만들어 냈고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레코드사의 부사장을 역임한다 [10].

두 사람이 함께 만든 1960년의 싱글 “Shop Around”는 R&B차트에서 모타운의 첫 1위곡이 되었다. 이 곡은 모타운에서 처음으로 100만장 이상이나 팔린 큰 히트곡이었다. 이 싱글을 시작으로 더 미러클즈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로빈슨의 음악적인 안목과 고디의 사업적인 매니지먼트 능력의 결합은 모타운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이블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둘의 만남이야말로 지금의 모타운이 있게 한 가장 절대적인 사건인 것이다. 로빈슨은 자신의 그룹을 위한 곡뿐 아니라, 다른 모타운 음악가들을 위한 싱글과 앨범에 참여하였다 [11].

여자 가수 메리 웰스는 로빈슨의 곡 “My Guy”(1964)로 1위를 하였고,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보컬 그룹 탬테이션스의 주요 작사, 제작자로 참여하여 “The Way You Do the Things You Do”, “My Girl”, “Since I Lost My Baby”, “Get Ready”와 같은 히트곡들을 발표한다. 또한 작곡가로서 포탑스의 “Still Waters(Love)”, 마블레츠의 “Don’t Mess With Bill”과 “My Baby Must Be a

Magician”, 브렌다 할러웨이의 “When I’m Gone”, 마빈 게이의 “Ain’t That Peciliar”과 “I’ll Be Doggone”, 콘투 어스의 “First I Look at the Purse”등을 발표한다.

팀은 1966년 스모키 로빈슨 앤 더 미러클즈로 이름을 바꾸었고, 1969년 그룹의 인기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로빈슨은 그룹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해 “Baby, Baby Don’t Cry”가 빌보드 팝 톱10에 오르고, 그들의 1967년 작품 “The Tears of a Clown”이 1970년에 싱글로 발표되어 미국과 영국에서 1위에 오르는 등 기대하지 않은 성공으로 로빈슨은 그룹에 몇 년 더 남아있기로 선택하였으나 1972년 7월 16일 로빈슨은 결심한 대로 워싱턴 D.C.의 카터 바론 원형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으로 팀을 떠난다[12]. 이후 1973년 자신의 첫 솔로 음반 “Smokey”를 발표하며 솔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모타운의 부사장으로서 임무에만 집중한다.

부드럽고 달콤한 R&B 스타일이 특징적인 그의 솔로 활동은 1973년작 “Smokey”에서 “Just My Soul Responding”과 같은 사회성 있는 노래를 담아 흑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며 74년에는 “Virgin Man”에서 남성답지 못한 남성을 소재로 가져오는 등 색다른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75년작 “A Quiet Storm”에서는 Soft Soul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제임스 브라운, 아레사 프랭클린, 윌슨 피켓 등으로 설명되는 거친 흑인음악인 소울을 세련되고 매끄러운 음악으로서 팝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로빈슨은 보컬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작곡가, 프로듀서로서 더욱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의 OST와,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음악으로 쓰여 유명해진 “Ooo Baby Baby”는 그만의 색을 가진 아름답고 달콤한 발라드 곡이며, 영화 “마이 걸”의 주제곡이며 기타리프로 유명한 “My Girl” 역시 템테이션즈가 다시 불러 빅 히트한 달콤한 소울의 명곡이다.

스모키 로빈슨은 “모타운 창시자, 베리 고디가 했던 가장 중요한 계약이다”란 말로 요약된다. 인종음악이라는 편견의 장벽을 부숴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로빈슨은 귀에 감기는 달달한 음악으로 인기만을 추구하는 음악인이었다면 지금 그의 명성은 칭송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흑인들만의 소울을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승화, 발전시키며 음악에서 만큼 흑인의 우월함을 증명한 뮤지션이다.

모타운의 스모키 로빈슨은 현대 소울 음악의 출발선과도 같은 뮤지션이다. 지금까지 많은 컴템퍼러리 R&B 뮤지션들은 그가 이루어 놓은 많은 음악적 특징과 색깔 속에 새로운 옷을 입혀나가며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음악인들의 보컬감성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모타운 사운드를 얘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보컬이자 작곡가다.

2.3 작품팀 H-D-H 트리오

1965년에서 1972년 사이에 모타운 레이블에서 발표된 빌보드 Top 10 히트곡은 모두 79곡이다. 그중에 28곡은 H-D-H, 혹은 그들 중 한명의 작품이었다. 또한 1위에 오른 21곡 중 12곡이나 바로 그들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1966년 모타운은 가수들이 부른 곡의 75%를 성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의 일등공신은 H-D-H였다. 이처럼 모타운은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히트곡 제조공장 이었다면 이들은 자동차 회사 제조 공장의 신제품 기획팀과 같은 히트곡 기획팀이었던 것이다.

약자 H-D-H란 에디 홀랜드, 브라이언 홀랜드의 홀랜드 형제와 라몬트 도지어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작곡가 팀이었다. 그 중 에디 홀랜드가 작사, 브라이언 홀랜드가 작곡을 주로 담당하고 라몬트 도지어가 작사, 작곡, 양쪽에 모두 참여했다.

1962년 이들 세 명은 한 팀을 이루어 활동을 시작한다. 그들 세 명은 모두 작곡가가 아닌 싱어로 활동하는 중이었고 뮤지션을 꿈꾸던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음악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음악 지식도 그다지 풍부한 편이 아니었다[13]. 하지만 그들은 당시 젊은이들이 원하고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간파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자극할 만한 가사의 문구와 춤추기 좋은 세련된 비트를 여가저기서 인용하고 변형 활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내는 감각이 뛰어났다. 그들은 스케치한 멜로디와 리듬의 아이디어를 핑크 브라더스에게 들려주고 핑크 브라더스는 그것을 다양한 패턴으로 변주하여 들려주었다. 그렇게 H-D-H는 노래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취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기 작곡가들의 작곡법을 50년 이상 앞서 행한 것이다. 지금은 컴퓨터라는 기계와 작곡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음악적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음악적 센스만으로도 작곡이 가능하지만 당시

의 조건에서 그러한 작품을 작업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뛰어난 음악적 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경쾌한 업템포 중심의 곡 위주로 창작해냈다. 특히 슈프림스의 1964년 “Where Did Love Our Go”를 시작으로 “Baby Love”, “Come See about Me”를 연속 1위, 3장의 싱글을 합쳐 500만장을 판매, 1965년까지 “Stop! In The Name of Love”, “Back in My Arms Again” 발표까지 5회 연속 빌보드 1위를 기록하는 대 히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독선적인 모타운의 설립자 베리 고디는 H-D-H에게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보상을 주었다. 부당한 대우에 지친 H-D-H는 1968년 10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모타운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2.4 세션 연주팀 황크 브리더스

디트로이트 흑인가 최고의 나이트클럽과 술집 뮤지션들로 구성되어진 황크 브라더스는 모타운의 뛰어난 하우스 밴드였다. 하루에 3곡씩 놀라운 속도로 히트곡 반주를 생산해냈다. 그러나 앨범의 속지조차에도 거의 이름이 거론되지 못했다. 베리 고디가 황크라는 단어는 백인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판매에 지장을 줄까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황크 브라더스는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드러머인 베니 벤자민과 유리엘 존즈, 기타리스트 로버트 화이트와 재즈 키보디스트 얼 반 다이크는 부드럽고 우아한 사운드를 입혔으며 특히 경쾌하게 깔랑거리는 잭 애쉬포드의 탬버린 연주는 모타운 사운드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황크 브라더스를 거쳐간 수많은 뛰어난 연주자들 중에서도 특히 베이시스트 제임스 제이머슨은 가장 유명한 뮤지션이면서 모타운의 어떤 연주자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연주자였다.

타이트하게 몰아가다가 건너뛰고 멈추고 혼드는 등 그루브를 다루는 그의 능력은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나 “Uptight”에서 보여 주듯이 전 세계의 뮤지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베이스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들려주는 사운드는 정말 라이브로 따라하기에는 힘든 것들이라 말한다. 스윙음악의 영향으로 순차적인 진행감 위주의 베이스 연주에서 10도 이상 도약하는 그의 주법은 모타운이 추구한 그루브한 진행감을 완성하여 즐겁고 신나는 모타운 사운드의 특징을 규정한다.

제이머슨은 1983년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넬슨 조지에게 “제 감성은 항상 동양적이었어요. 영적이었다는 말이지. “Standing in the Shadows of Love”를 들어보세요. 베이스 라인이 아랍 풍일 겁니다. 제 주변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동양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쿠바, 인도의 음계도 공부했죠. 제가 이 모든 것을 모타운에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의 기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흑인 음악의 상품화를 위주로 잘 조직된 음악 공장인 모타운의 신화와는 반대로 제이머슨의 베이스 연주는 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법으로 마술과 같은 음악적 영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목소리의 억양 등에서 음악을 이끌어 냈고, 구절을 따왔죠.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볼 때면 그 움직임에서 비트를 가져왔습니다. 템테이션즈에서 했던 헤비하고 황키한 음악 중 한곡을 보면...이름은 까먹었지만 아주 이렇게 크고 뚱뚱한 여인이 걸어 돌아다닙니다. 그 여인은 한시도 가만있지를 못하죠. 저는 그 움직임을 흉내 내서 그 곡을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모타운이 1970년대 이후 성공을 지속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회사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황크 브라더스를 디트로이트에 남겨두었다는 것이 그 중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A로 이주한 2년 간, H-D-H트리오, 포 탑스, 아이즐리 브라더스, 클레이디스 나이트가 모타운을 떠나고 스티비 원더와 마빈 게이가 음악가적 자의식에 눈을 뜨고 자신들의 갈 길을 찾아 떠나게 되자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베리 고디의 독재적인 권력은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으나 음악가들의 영혼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Table 1> 1959년~1971년 모타운 전성기 Billboard Hot 100 No1. Hit Singles 과 아티스트 및 UK 싱글차트

년도	곡명	아티스트	UK 차트
61	Please Mr. Postman	The Marvelettes	
63	Fingertips-Pt. 2	Little Stevie Wonder	
64	My Guy	Mary Wells	5
64	Where Did Our Love Go	The Supremes	3
64	Baby Love	The Supremes	1
64	Come See About Me	The Supremes	27
65	My Girl	The Temptations	43
65	Stop! In the Name of Love	The Supremes	7
65	Back in My Arms Again	The Supremes	40

65	I Can't Help Myself (Sugar Pie, Honey Bunch)	Four Tops	23
65	I Hear a Symphony	The Supremes	39
66	You Can't Hurry Love	The Supremes	3
66	Reach Out I'll Be There	Four Tops	1
66	You Keep Me Hangin' On	The Supremes	8
67	Love Is Here and Now You're Gone	The Supremes	17
67	The Happening	The Supremes	6
68	Love Child	Diana Ross & the Supremes	15
68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Marvin Gaye	1
69	I Can't Get Next to You	The Temptations	13
69	Someday We'll Be Together	Diana Ross & the Supremes	13
70	I Want You Back	The Jackson 5	2
70	ABC	The Jackson 5	8
70	The Love You Save	The Jackson 5	7
70	War	Edwin Starr	3
70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Diana Ross	6
70	I'll Be There	The Jackson 5	4
70	The Tears of a Clown	Smokey Robinson & the Miracles	1
71	Just My Imagination (Running Away with Me)	The Temptations	8

3. 결론

우리나라 음악 시장만 보아도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젊은 세대가 즐겨듣는 히트곡들은 흑인음악을 바탕으로 그들의 창법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음악이 대세를 이룬다. 그것이 가수들의 평가 기준이 될 만큼 우리 음악을 잠식하고 있다. 제작자 박진영은 활동 초기부터 모타운 레코드를 자신의 음악적 뿌리로 여겨 왔다고 밝혔고 원더걸스를 과거 슈프림스를 연상시키는 의상과 퍼포먼스로 본토 미국시장까지 진출시켰다.

백인의 노예였던 흑인, 흑인의 주인이었던 백인. 그들의 너무나도 다른 음악적 이념 속에서 모타운은 소통과 화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음악의 흑백 통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설립자 배리 고디의 확신이 성공한 것이다. 스모키 로빈슨의 말대로 모타운 음악이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모타운 성공 요인을 사회적 배경 관점으로 분석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진보적 감상용 음악인 비밥이 대세를 이루고 비밥과 더불어 영턱스 그룹의 등장으로 당시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루던 빅밴드 스윙재즈의 쇠락을 가

져왔다. 또한 도시 빈민가 댄스 음악이던 R&B음악시장에서 흑인뿐 아니라 백인 스타들도 등장하게 된다[14].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R&B음악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독립적인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젊은 세대의 일종의 무기가 되었고, 흑인들을 위한 블랙 라디오의 시작은 흑인 청취자들이 소비자로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며 흑인 음반회사는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모타운은 그들만의 사운드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모타운 레코드사의 대단한 성공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자 배리 고디 주니어는 뛰어난 사업적 수완과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천재적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음악에 단순한 형식의 히트 패턴을 확립했다. 즉, KISS전략 (Keep It Simple, Stupid)라 불리는 전략이었다.

셋째, 다양한 산하 레이블을 만들고 각기 다른 음악적 수요를 모두 채워주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개발하였다.

넷째, 슬로건인 젊은 미국의 사운드(The Sound Of Young America)아래 흑과 백인 모두를 포괄하였다.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까지 모두를 수용하는 음악을 창조한 것이다.

다섯째, 분업화된 음악 작업을 통해 대중에게 확실하게 어필하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여섯째, 가수를 준비 시키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무, 작품뿐 아니라 매너, 말투, 행동 품위까지 교육시키고 준비 시키는 스타 메이킹 시스템을 확립하였다[15].

모타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타운 사운드는 분명 진보적이지만 대중성을 배제한 예술성이나 실험성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반대로 동시대의 대중들이 열광하는 요소에만 치우치거나 대중들의 입맛에만 집착하여 맞춤형 음악만을 생산해내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아티스트들의 자의식이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대중의 기호에 많이 편향되어져가는(특히 어린 연령대) 우리 가요 입장에서 깊이 되짚어 봐야할 부분이

다. 모타운 시스템을 적극 차용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리 기획사들은 모타운이 이루어낸 사업적인 성공 뿐 아니라 인종의 화합을 이루어낸 모타운 아티스트들의 자각과 노력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탄생 될 수 있도록 음악인들과 음반 산업 모든 종사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REFERENCES

- [1] Arthur Jung “History of American black people music and 12 Years a Slave (Movie)”
<http://arthurjung.tistory.com/trackback/399>[2014.03.24.]
- [2] Encyclopædia Britannica “Motown”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7m3888n9> [2016. 8. 16]
- [3] Ji-Young Kim. “ Era of ideal, music of Rebellious : 60’s American society and rock music”. IWELL Contents, 1995.
- [4] Jae-Yung Cho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24-4431, 2015
- [5] Seong-Woong Bae1, Jeong-Bae Park A study on How Korean Wave’s characteristic effect on sponso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70-77, 2015
- [6] Jin-Mo Im “The trajectory of Motown Records 50 years, Power of Afro-american”
<http://www.izm.co.kr/contentRead.asp?idx=19972&bigcateidx=19> [2009.02]
- [7] Kyung-Jin Kim “Evolution of black people music Motown” Prologue Detroit Years & Heydays(1)
<http://music.naver.com/promotion/fameContent.nhn?volumeId=83&articleId=2152>
- [8] Seung-woo Cha “The rise and fall of the kingdom of the Motown”
<http://ch.yes24.com/Article/View/15859> [2010.05.06.]
- [9]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
- [10] Seung-Hyun Cho Long term solution for K-POP

- globalization -Concentrating to the change in edu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18-4423, 2015.
- [11] Do-Toung Yoon Tae-Seon Cho Analysis Of the Bass Performance Of Jimmy Blant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 pp56-61 2015.
- [12] <http://hiphople.com/> “Great composer Smokey Robinson & The Miracles”
<http://hiphople.com/series/111744>[2011.07.02.]
- [13] Hea-Kwon Lim Tae-seon Cho A study of Individuality of Seung-Hwan Lee’s Music Repres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11 pp409-415 2015.
- [14] <http://baronsamdi.tistory.com/> “<Funk> 3-15 - Motown pt.2” <http://baronsamdi.tistory.com/69> [2010/10/23]
- [15] Beom-Jin Jo Tae-seon Cho A study on Arrangement through Avoid note and Tension not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11 pp349-355 2015.

공진석(Gong, Jin Seok)



- 2007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강사
- 2008년 5월 ~ 현재 : KMI실용음악학원 대표
- 2010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강사
- 2017년 2월 : 청운대학교 대학원 실용음악학과 석사

- 관심분야 : 실용음악, 보컬, 음악사
- E-Mail : garykong@daum.net

조태선(Cho, Tae Seon)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5월 : 한국 문화 예술 융합협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7년 6월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관심분야 : 실용음악, 보컬

- E-Mail : entheos@chungwoon.ac.kr